

여수 만흥지구 임대주택 조성 사업 갈등

시의회 "계획대로 관광 휴양지구 개발해야" 원점서 재검토 촉구 남만포차 이전·여순사건 위령사업 등 시책마다 시-의회 충돌

여수시의회가 여수시가 추진 중인 만흥지구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여수시의회에서 따르면 최근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좁은 모래해수욕장 등 전국적인 관광지로 부상한 만흥지구가 당초 계획대로 관광 휴양지구로 개발되어야 함에도 여수시가 임대주택 지역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완석 의원은 간담회에서 "지난 2013년부터 여수시는 만흥지구를 검은 모래 해변의 명성을 찾기 위해 해양관광 휴양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대단위 임대주택 단지로 조성하려는 것은 여수시의 전체적인 도시개발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수시는 지난 2013년 만흥지구 평촌마을 22만 1000㎡(약 7만 6000평) 부지에 775세대가 입주 가능한 사업계획(시공영개발)을 골자로 전남도에 도시계획변경안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2015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2016년 10월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같은 해 11월 교통영향평가와 건설기술심의까지 모두 완료했다.

서 의원은 "여수시장과 시가 지난 4월 직접 시비를 투입, 공영개발 한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추경에 착수 예산(8억원)을 올려 의회가 승인했다"며 "여수시 주택보급률이 120%에 달하는데도 한 달 만인 지난 30일 갑자기 LH와 대규모 임대주택 개발 사업 협약을 맺은 여수시 행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행기 의원은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면 만흥지구가 가진 관광지로서 명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여수의 주요한 관광콘텐츠가 돼야 할 곳을 사전 의견수렴도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임대주택단지로 변경한 것은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방향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민들도 임대주택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LH협약 이후 여수시 관계자들이 만성리 평촌·중촌 통장과 주민들을 찾아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었지만 주민 반발에 따라 협약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여수시의회가 여수시가 추진 중인 만흥지구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만흥지구에 포함된 만석리 해수욕장 일대.

다.

시의회 간담회 이후 열린 주민회의(중촌·평촌)에서도 지난 13일과 14일 잇따라 여수시 임대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결정됐다.

이처럼 여수시와 시의회가 주요 시책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선 7기 여수시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남만포차 이전 예산 5억원 전액 삭감 등 권오봉 시장과 여수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

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도 문제가 됐다.

권 시장은 기독교계 단체들이 '위령' 문구를 문제 삼아 이를 개정해달라며 재의 요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권 시장은 의회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의 요구 등을 철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내일 세계수영대회 마스코트 조형물 제막식

여수시는 20일 여수엑스포역 광장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 조형물(사진) 제막식을 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5월 30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당초 6월 1일로 계획된 제막식을 연기했다.

제막식에는 여수시장, 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지역 국회의원, 여수시의회 의장과

도·시의원, 유관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 앞서 우도풍물단이 현장 분위기를 띄우고, 분행사에서는 가림막 제거 세리머니와 대회 성공개최 염원 퍼포먼스 등을 진행한다.

조형물 이름은 '수리'와 '달이다'. 높이가 2.5m, 너비 2m로 암수 수달을 형상화했다. 청와대 사랑채 앞, 용산역, 서울역 등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오픈위



터거기는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앞바다에서 선수권대회(7월 13일-19일)와 마스터즈대회(8월 9일-11일)로 열린다.

여수시는 10개 부서 13명으로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시설을 정비하고 손님맞이 등 막바지 대회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출입국사무소-모아치과, 보호외국인 진료 협약



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유병길)가 지역 대표 병원인 여수모아치과와 함께 보호 외국인 진료에 본격 나선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출입국사무실 3층 회의실에서 유병길 소장과 여수 모아치과 장정록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외국인 치료과 진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런 협약으로 보호외국인들은 치료할 응급상황 시 모아 병원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된다. 또 수준 높은 의료진들이 매년 2차례씩 보호실을 방문, 정기 치료진료 서비스와 함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협약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그동안 보호외국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들었던 치료부문 진료를 지역 우수 전문병원과 함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호외국인 인권 강화는 물론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수출입국사무소는 기대하고 있다.

장정록 여수모아치과병원장은 "지난해 말 출입국 사무소 시범 출장 치료 결과 보호외국인들의 호응이 뜨거워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보호외국인들을 위한 전문 의료진들의 치료진료와 함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모아치과병원은 의술을 통한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1987년 여천치과로 출발, 2007년 지금의 모아치과병원으로 확장했다. 각 과별 전문의들로 구성된 치료종합병원으로 전남 동부권역의 유일한 보건복지부 인증을 획득한 지역 대표 전문병원이다.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치주과, 보존과, 구강내과 등 6개 진료과 9명의 의사를 포함한 약 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도시 브랜드 높이기 박차

슬로건 공모 수상작 선정

최우수상에 '섬섬여수'

여수시가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에 적극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장 상황실에서 '여수시 BI(Brand Identity) 개발 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브랜드 슬로건 공모 수상작 8건을 선정했다.

수상작 중 최우수상은 '섬섬여수'로 섬섬속속과 여수를 결합한 합성어다. 365개의 섬을 함축해 표현했고 '곱다'라는 뜻도 담겨있다.

우수상은 '낭만섬포 여수', '여기!, 여수!'가 각각 차지했고 장려상에는 'Sea you 여수', '365Sum', '수려해(수려해) 여수', '물빛누리 여수', '해맑은 휴양도시 여수'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4월 17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공모에는 전국에서 2342명이 참여해 슬로건 2561건을 제출했다.

네이밍 전문가가 참여한 용역진은 1차로 슬로건 50건을 선별했다.

이후 언론인, 디자이너, 브랜드 컨설턴트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2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 100만원, 장려상 5명에게 각 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공모 수상작 8건과 용역사 개발안 13건 중 여수시 BI로 활용할 네이밍 9건을 별도로 선정했다.

앞으로 여수시는 네이밍 전문가 검토와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여수시 BI 1건을 최종 확정하고 디자인을 개발할 방침이다.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은 "시민 의견이 반영되고 여수의 매력과 가치,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브랜드 슬로건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여수시 BI 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도시재생 우수 '국토부 장관상'

여수시가 도시재생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여수시는 지난 17일 열린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시상식에서 도시재생지역 활성화 분야 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은 SBSCNBC, 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이 후원했다

여수시는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 및 마을 공동체 활동 등에 노력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100년 재성을 목표로 정책 수립단계부터 사업 추진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 이후에는 도시재생분야 브리핑이 이어졌다.

전국 지자체 중에는 여수시를 비롯해 창



원시, 전주시가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은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 맛과 멋의 향유, 도시재생을 품다'라는 주제로 이순신광장과 고소동 벽화마을을 조성사업 등을 도시재생 사례로 소개했다.

권 시장은 2018·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수지구와 한려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함께 설명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능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필 제 190402-중-91648호]

진정한 난임의 극복은 임신의 소식이 아니라
건강한 아기의 출산입니다.

난임치료 | 시험관아기시술 | 냉성난임 | 난자냉동 | 복강경수술

정효영 원장

062)368-1700 광천동 LG유플러스 옆

의료진 | 최범재 김명미 정효영 오인경 최민영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